

프로그램 진행개요

| | | | |
|-------|--|---------|----|
| 프로그램명 | 제1수원지 | | |
| 활동목표 | 무등산의 4개의 수원지 중 제1수원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등산에서 생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 |
| 해설주제 | 내손으로 담은 무등산 제1수원지 | | |
| 해설재료 | OHP필름, 네임펜 | 소요시간(') | 60 |

프로그램 진행순서

| 해설단계 | 해설주제 | 주요내용 | 시간(') | 비고 |
|-----------|---------------|---------------------------------------|-------|----|
| 시작 | 1.인사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 10분 | |
| 주제별 해설 | 2. 제1수원지 | -제1수원지 소개 -경관소개 -두꺼비 -새들의 쉼터 | 20분 | |
| | 3.손에 담은 제1수원지 | -OHP필름에 담아보는 제 1 수원지 | 20분 | |
| 정리 | 4.마무리 | -느낌말하기 -정리 및 마무리 인사 | 10분 | |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 | |
|-------|---------|
| 프로그램명 | 제 1 수원지 |
|-------|---------|

| 해설주제 | 세부 시나리오 |
|---------|---|
| 무등산국립공원 | <p>안녕하세요. 무등산국립공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저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까지 참 맑아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 저는 참 행복한데요. 여러분께도 저의 행복바이러스를 나눠드리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의 행복바이러스에 잘 전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p> <p>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와계신 이곳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p> <p>첫째로 국립공원이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 문화유산의 보고, 빼어난 자연경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공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을 자원, 동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리산을 비롯한 21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바로 이곳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난 2013년 3월 4일 무등산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p> <p>그렇다면 무등산에 대해서 알아보까요?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 화순에 걸쳐있는 광주·전남의 진산입니다. 예부터 무돌, 무정산, 무덤산, 서석산등 부르는 이름이 많았으며 무등산(無等山)이라는 이름의 무등은 ‘없을 무’에 ‘등급 등’자를 써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을 중심으로 곳곳에 펼쳐진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는 웅장한 암석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주상절리대로 천연기념물 제 4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병이나 역사적으로 많은 선조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으며,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p> <p>여러분 방금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 설명을</p> |

| | |
|-------|---|
| | <p>드렸는데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쓰레기투기, 자연훼손행위, 비법정탐방로 이용, 야영 및 취사, 흡연, 애완동물 입장 등)</p> <p>국립공원이 어떤 곳이며 무엇을 잘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 빠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이곳 제1수원지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의 교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
| 제1수원지 | <p>여러분 앞에 있는 이곳이 바로 무등산 제1수원지입니다. 혹시 이곳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는 분계신가요? 네. 바로 이곳은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에 조성된 0.48km² 규모의 작은 수원지입니다. 1수원지는 주로 광주시내 중심부에 거주한 일본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하루 800t의 물을 생산해 8천명에게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제4수원지가 준공되고 뒤이어 동북에 대규모 수원지가 건설됨에 따라 광주시는 제1수원지의 소유권을 넘겼고 지금은 (주)프라임월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프라임월드는 제1수원지를 온천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등산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p> <p>주위를 둘러보세요. 산정상은 아니지만 마음이 탁 트이고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p> <p>넓게 펼쳐진 푸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죠. 오늘의 하늘은 ~네요 (당일 날씨를 설명).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하루에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바쁜 나날 중엔 그런 날이 있었겠지요? 앞으로도 있을 거구요. 그런 날을 위해 오늘의 하늘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수원지를 품에 안은 무등산을 둘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보이시죠? (덕산너덜, 중봉, 장불재)</p> <p>-덕산너덜: 너덜은 주상절리대가 부서지면서 생긴 지형인데요, 저기 보이는 너덜지대는 동화사터와 중봉사이의 주상절리대가 무너지면서 생긴 덕산너덜이라고 합니다.</p> <p>-중봉: 너덜지대 옆으로 보이는 두 개의 송신탑이 보이시나요? 저</p> |

| | |
|----------------------------------|---|
| | <p>곳이 바로 가을이면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해발 915m의 중봉입니다.</p> <p>-장불재: 그리고 능선을 따라 쪽 가다보면 보이는 또 하나의 탑이 바로 해발 900m인 장불재입니다.</p> <p>이렇게 넓은 하늘과 두 눈으로 무등산을 한눈에 돌아 볼 수 있었기에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p> <p>다음으로는 시선을 좀 더 가까이~ 가까이~ 끌어당겨 볼까요?</p> <p>이곳 제 1수원지를 둘러선 나무와 삼나무 숲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곳에는 (주변 수목 설명) 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두꺼비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새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답니다. 3월경이면 물속에서 두꺼비 알이 부화하여 산으로 대이동이 시작되고, 5월 중순에서 5월말에 다시 서식지로 돌아와 번식을 합니다. 또 요즘의 계절에는 꿩과, 곤줄박이, 오목눈이, 흰뺨검둥오리, 원앙 등 다양한 새들의 휴식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되니까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1수원지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
| <p>내손으로 담은 무등산 제1수원지</p> | <p>모두 잘 둘러보셨나요? 지금부터는 눈으로만 보기엔 아까운 제 1수원지를 직접 손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임펜과 OHP필름을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1수원지를 손으로 직접 담으시면 됩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두꺼비의 집이기도 하고 새들의 쉼터라고 했죠? 조용하게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리고 가슴에 담는다는 느낌으로 자유롭게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p> |
| <p>마무리</p> | <p>여러분 ‘요산요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래는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라는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인데, 이런 문장이 뒤를 잇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동적이요, 어진 자는 정적이며, 슬기로운 자는 즐기며, 어진 자는 오래 산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무등산의 덕산너덜, 중봉, 장불재 그리고 1수원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그리고 마음에 담은 여러분은 모두 어질고 슬기로운 분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무등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껏 품고 이곳에 자주 방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p> |